

문화분야 ODA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현황 연구 - 문화체육관광부와 KOICA 중심으로

The Current Culture and Arts Education Research in a Cultural Field of ODA :
Focusing on MCST and KOICA

백소연*, 박경철**

조선대학교 문화학과*, 조선대학교 문화학과, 만화애니메이션학과**

So-Yeon Paek(soyeon_paek@hotmail.com)*, Keong-Cheol Park(manphist@hanmail.net)**

요약

ODA란 개발이 덜된 국가에 도움을 주기 위한 공여국의 공적개발원조이다. 2000년대에 들어서 ODA의 패러다임은 경제원조에서 문화원조로 전환되기 시작했다. 문화분야 ODA에 있어서 문화예술교육은 수원국 주민 개개인의 창조성 개발과 문화적 역량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국제 사회 내에서 '지속가능한 발전교육'으로서 문화예술교육의 가치 확산에 기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중요하다. 본 연구자는 한국의 문화분야 ODA 통계나 분석 등의 구체적인 현황을 파악하고자 하였으나 쉽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는 문화분야 ODA의 다음 연구들을 위한 기초적인 토대를 만들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와 KOICA의 문화분야 ODA 현황을 분석하는 것이 목적이다. 수원국의 전통문화 보존, 문화유산 보호와 개발은 빈곤 감소와 문화 발전의 토대가 되고 세계 인류애와 보편적 가치의 실현을 이룰 수 있다. 이를 통해 공여국과 수원국의 동반자적 발전이 이루어질 것이다.

■ 중심어 : | ODA | KOICA | 문화분야ODA | 문화예술교육 |

Abstract

ODA is administered with the promotion of the economic development and welfare of undeveloped countries provided by developed countries. Entering the 2000s, the paradigm of ODA is gradually diverted from economic aids to cultural aids.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n cultural field of ODA aims to analyze the current ODA status in order to build a base for next research. Eradicating poverty and leading the development in culture that could be a base for the development of a country through conservation of traditional culture and protection of heritage can be an universal value realization.

■ Keyword : | ODA | KOICA | Cultural Field of ODA | Culture and Arts Education |

I.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ODA란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의 약자로 개발이 덜된 국가에 도움을 주기 위한 공여국의 공적개발 원조를 의미한다. 한국의 경우, 1945년 이후 경제발

* 이 논문은 2015년도 조선대학교 학술연구비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접수일자 : 2015년 08월 12일

수정일자 : 2015년 10월 20일

심사완료일 : 2015년 10월 20일

교신저자 : 박경철, e-mail : manphist@hanmail.net

전 과정에서 국제사회로부터 127억 7600만 불의 원조를 받았다. 해방 이후 받은 무상원조의 약 70%가 1960년까지 이루어졌다. 한국의 무상원조는 1957년부터 줄어들기 시작했으며 1959년 말부터는 유상원조로 대체되었다. 1960년 1월 '외자도입촉진법'이 제정되면서 각 선진국으로부터 적극적인 외자 도입이 이루어졌고, 이는 한국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밑거름이 되었다[1].

ODA에 있어서 한국의 위상은 대단히 독특하다. 한국은 최대 원조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바뀐 최초의 국가이다. 1995년 세계은행의 차관 졸업국이 됨으로써 ODA 수원국에서 졸업하였고, 본격적으로 공여국으로 전환되었다. 이처럼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전환된 최초의 사례가 된 한국의 ODA 사업은 의미심장하다. 1963년부터 USAID(미국개발원조청)의 자금지원을 받아 개발도상국의 공무원을 초청하여 연수를 시작했다. 1987년에 EDCF(대외경제협력기금)을 창설했으며 1991년 KOICA(한국국제협력단)설립으로 원조의 틀을 마련함으로써 1995년부터 본격적으로 대외원조를 추진하게 되었다.

2000년대에 들어서 세계적으로 ODA의 패러다임은 경제원조에서 문화원조로 전환되기 시작했다. 한국 전체 ODA 예산은 2014년 GNI 대비 0.13%에 불과하지만 [2], 문화분야 ODA에 대한 지원건수는 다른 분야 ODA 보다 많다는 사실은 주목할 만한 일이다. 문화분야 ODA에 대한 재정적 지원과 관련분야 전문가의 육성은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일 뿐 아니라, 수원국의 문화분야의 발전을 도모한다. 문화분야 ODA는 수원국의 경제적 발전과 더불어 구성원의 자부심을 증진시키고 정체성을 정립시키며 인도적인 가치를 실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문화적 수준이 높아지면 그 지역 국가의 민주화와 산업화에도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다. 문화분야 ODA 사업은 문화감성을 높이고, 정책적·물적·인적 지원을 통해 개발도상국의 경제·문화적 발전에 기여하며, 국가 간 이해 증진을 도모하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 또한 한국의 입장에서는 한류의 다각적 확산을 위한 문화콘텐츠 컨설팅 사업으로 자리매김할 수도 있다. 이를 통해 수원국의 지역자원 개발, 그 지역의 고유한 문화기술을 증진시킬 수 있는 창조산업

기반 조성, 시장 확대, 전통문화의 보존과 활성화가 전망된다. 이와 같은 이유로 많은 나라들이 문화분야 ODA에 주목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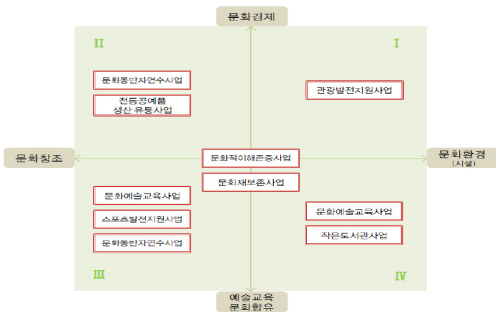
문화분야 ODA에 있어서 문화예술교육은 수원국 주민 개개인의 창조성을 개발시키고 수원국 사회의 문화적 역량을 강화할 수 있기에 그 역할이 중요하다. 문화소통을 통한 이해는 경제 원조 못지않게 중요한 가치로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 따라서 국제 사회 내에서 '지속가능한 발전 교육'으로서 문화예술교육의 가치 확산에 기여할 수 있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중요하다.

선행연구로써 한국의 문화분야 ODA를 보면, 하영수는 2005년의 <일본 ODA의 문화협력에 관한 연구>에서 우리나라의 문화협력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며, 단순 교류가 아닌 협력의 성숙한 단계의 틀에서 정책 입안과 문화협력을 추진하는 별도의 위원회 혹은 기구 설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3]. 정정숙은 2013년의 <지속가능한 국제개발협력의 열쇠, 문화 영역 공적개발원조>에서 개발도상국의 문화와 문화 분야 ODA 사업의 지속성과 심화가 필요하며, 개도국 현지 수요조사를 위한 중장기적 투자와 문화연구자들에 대한 중장기적 투자가 중요하고 국내 문화예술계의 인식제고를 위한 실천력 있는 기회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4]. 정환문은 2014년의 <한국 문화분야 ODA문제와 나아가야 할 방향>에서 최근 ODA의 규모가 늘어남에 따라, 한국형 ODA 모델의 첫 번째로 추진양식인 선택과 집중을 통해 주어진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ODA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5]. 이것은 최근 한국의 ODA 규모가 양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신호로 보인다. 하지만 선행연구를 통해 한국의 문화분야 ODA와 문화예술교육의 구체적인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는 문화분야 ODA의 다음 연구를 위한 기초적인 토대를 만들기 위해 문화분야 ODA와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현황을 분석하는 것이 목적이다. 문화분야 ODA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목표에 대해 정정숙은 2013년의 <문화영역 공적개발원조 활성화 방안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이 문화예술교육에 대해 제시하고 있다[6].

“수원국에 대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은 개발도상국 주민 개개인의 창조성과 상상력을 신장시키며, 개도국 사회의 문화적 역량을 강화하고, 문화예술교육 체계를 구축하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담보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또한 문화예술교육의 가치를 확산시킬 수 있어야 하며 문화소통을 통한 수원국 간의 상호 이해를 도모할 수 있어야 한다.”

[표 1]에서 정정숙은 문화분야 ODA의 유형 및 그 결과를 수평의 ‘문화창조-문화환경’ 축과 수직의 ‘문화경제-예술교육 문화향유’ 축으로 배치하여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효과를 제시하고 있다. 그는 문화예술교육과 문화시설 건립은 예술교육 문화향유로 수원국 주민의 문화권 보장 및 문화향유를 확대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며, 문화환경은 수원국의 문화권 향유, 문화산업을 발전시킬 환경조성과 창조는 문화발전에 필요한 기초시설 건립에 필요한 효과를 가져 온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문화분야 ODA의 문화예술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 개도국 주민의 문화권리 향유 촉진과 개도국의 창조산업 기반 조성과 문화 정체성 확립을 위해 문화예술교육이 필요하며, 문화분야 ODA의 예산 증대와 사업 영역의 확장을 통해 다양한 국가들과의 교류와 협력을 위한 문화예술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다.

표 1. 문화분야 ODA 프로그램의 효과[6]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은 지속적으로 개발 가능한 신규 프로그램으로서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 문화분야 ODA의 문화예술교육 분야에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장르별 사업 확대는 필수적이다. 하지만 현재는

관련 프로그램이 음악과 미술 장르의 프로그램에 집중되어 있는 편이다.

본 연구자는 선행연구로 ODA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살펴보고자 했지만, 이와 관련된 보고서나 논문 등의 자료가 부족하였다. 이는 한국이 문화분야 ODA의 문화예술교육분야가 초기 단계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국은 공여국의 입장에서 많은 프로그램들을 운영했지만,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한국의 ODA 지원정책의 문제점은 공여 주체로서의 경험 부족과 뚜렷하고 일관된 프로그램의 부재를 들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이 공여국으로서 어떻게 수원국의 문화예술교육분야에 접근해야 하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2. 연구범위 및 방법

연구범위는 문화분야 ODA에서도 문화예술교육 분야로 한정하고자 한다. 또한 문화분야 ODA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연구 대상으로 하되, 다른 나라의 사례를 살펴보기 위해 OECD DAC(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소속 국가들 중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 프랑스, 미국, 일본을 선정하여 2000년 이후 진행되고 있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과 한국의 문화분야 ODA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연구방법으로는 우선 1차 원천자료인 문화분야 ODA 관련 OECD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등 정부보고서, KOICA 자료 및 KOICA 정책보고서를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2차 문헌자료인 문화분야 ODA 학위 논문, 학술 논문 및 관련 저서를 살펴볼 것이다. 앞의 선행연구를 통해 ODA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필요성 및 방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의 문화예술교육 현황을 살펴본 후, 한국에서 어떻게 ODA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정착시키고 활성화시켜야 할 것인가에 대한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한다.

연구문제는 다음의 두 가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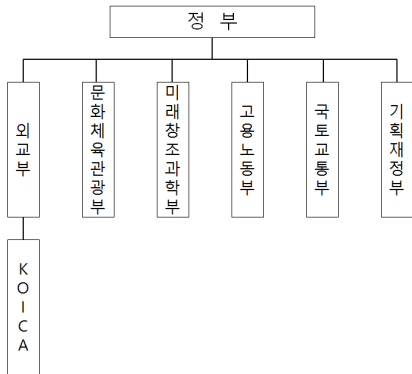
첫 번째, 문화분야 ODA의 프로그램은 어떤 현황인가? 이를 위해 문화분야 ODA 개념, 문화분야 ODA 지원현황과 문화분야 ODA 프로그램 운영으로 연구하였다. 두 번째, 문화분야 ODA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은 어떤 현황인가? 이를 위해 ODA 운영구조와 ODA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지원현황을 연구하였다.

II. 문화분야 ODA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현황

ODA를 관장하는 정부부처는 다양하지만, 앞에서 언급한 대로 그 가운데 비중이 가장 큰 부처는 외교부의 KOICA와 문화체육관광부이다. 외교부 산하 KOICA는 수원국에 대한 무상원조를 지원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관련기관 43개와 소속기관 17개를 통해 비중은 작지만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다.

표 2. ODA 운영 구조



1. 문화분야 ODA의 프로그램 현황

문화에 대한 정의는 다양하다. 타일러(E.B.Tylor)는 <원시문화>에서 문화를 “지식, 신앙, 예술, 법률, 도덕 관습 그리고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의 인간에 의해 얻어진 다른 모든 능력이나 관습들을 포함하는 복합총체”라고 정의한다. 광의적 범위의 정의로서 UNESCO 2001 세계문화다양성 선언에서는 “문화를 한 사회의 독특한 정신적·물질적·지적·감성적 특성들의 총체를 아우르는 삶의 방식”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협의적 범위의 정의로서 문화는 총합적이고 본질적인 문화개념 중 현실적, 정책적인 장에서 실질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내용에 따라 세분화했을 때 정치·경제·사회 분야와 구분될 수 있는 문화영역으로서의 예

술, 관광, 스포츠 등의 영역을 의미한다[7]. 따라서 문화분야 ODA는 개발도상국 주민의 문화와 정서를 존중하고 문화권을 향유하도록 지원하여 정신적·정서적·신체적 표현을 통한 최소한의 복지를 확보하게 하고 그들의 문화자원을 활용하여 사회·경제적 발전을 지속적으로 성취할 수 있도록 공여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지원하는 협력사업을 의미한다[5].

[표 3]은 KOICA의 1991년부터 2009년까지 사업 분야별 ODA 지원 현황비율이다. 이 중 문화분야 ODA에 해당하는 교육 분야는 15.6%로 행정제도(17.5), 보건의료(16.6), 환경/기타(16.2)에 이어 높은 순위이며, KOICA 설립 이후 2009년까지 교육 분야에 큰 비중을 두고 지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 1991 - 2009년 사업 분야별 비율[8]

| 구분 | 교육 | 보건의료 | 행정제도 | 지역개발 | 정보통신 | 산업에너지 | 환경/기타 | 긴급구호 | 기타 | 합계 |
|---------|---------|---------|---------|---------|---------|---------|---------|---------|--------|-----------|
| 금액(백만원) | 341,048 | 363,814 | 384,092 | 151,931 | 227,114 | 183,680 | 354,845 | 129,989 | 55,314 | 2,191,827 |
| 비율(%) | 15.6 | 16.6 | 17.5 | 6.9 | 10.4 | 8.4 | 16.2 | 5.9 | 2.5 | 100.0 |

[표 4]는 KOICA의 2008년도 문화분야 ODA의 교육분야 지원현황이다. 대분류로 ‘교육’과 ‘교육 체제 및 인력 컨설팅’으로 분류되고 있다. 교육 분야는 문화체육교육, 직업훈련교육, 일반교육으로 나뉘고 있다. 문화체육교육이 가장 많은 인원수(496명)와 높은 비율(48%)로 1순위를 나타내고 있다. 문화체육교육은 무용, 미술, 시청각 미디어, 음악, 체육, 한국어로 세분화되어 있다. 교육 체제 및 인력 컨설팅 분야에는 교육과정개발 및 평가가 있다. 교육과정개발 및 평가는 두 번째로 많은 인원수(215명)와 비율(21%)로 2순위를 나타내고 있다.

표 4. 2008 KOICA 해외봉사단 교육분야 지원 현황[9]

| 대분류 | 중분류 | 세부내용 | 인원 | 비율 | 순위 |
|------|--------|-----------------|-----|-----|----|
| 교육 | 문화체육교육 | 무용, 미술, 시청각 미디어 | 496 | 48% | 1 |
| | | 음악, 체육, 한국어 | | | |
| | 직업훈련교육 | 영양, 유아 미용 | 133 | 13% | 3 |
| 일반교육 | 교육일반 | 수학, 청소년 | 114 | 11% | 4 |
| | | 특수교육 | | | |

| | | | | | |
|---------------|--------------|--|-----|-----|---|
| 교육 체제 및 인력컨설팅 | 교육과정 개발 및 평가 | 교육정책기획 및 실행 | 215 | 21% | 2 |
| | | 직업훈련제도운영 및 교육과정 개발 중등교육과정개발 및 평가 학교운영 및 관리 | | | |
| | 인력개발 | 국가인적자원개발정책 초등교육교사양성 및 역량강화 | 70 | 7% | 5 |

[표 5]는 OECD의 2007년부터 2008년까지 공여국의 수원국에 대한 문화분야 사업 유형이다. 특히, ODA 총액 부분에서 비교우위를 차지하는 프랑스, 미국과 일본을 OECD 통계 사이트에서 정리하고 있는데 여기에 본 연구자가 총 예산과 총 건수에 대해 한국과 비교하기 위하여 만든 표이다.

표 5. 프랑스·미국·일본·한국의 원조 국가 문화분야 사업 유형[10]

| | 총 예산 US million | 총 건수 | 장비 | | | 시설(구축, 관리, 운영) | | | 프로그램 | | | | | | | 그 외 | | | |
|------|-----------------|------|----|--------|-------|----------------|------|-----|-------|----|----|-----|------|-----|------|-----|----|--|-----|
| | | | 음향 | 영상 미디어 | 소프트웨어 | 극장 | 문화센터 | 도서관 | 기록보존관 | 기타 | 예술 | 스포츠 | 언어문학 | 미디어 | 문화유산 | | 기타 | | |
| 07 | | | | | | | | | | | | | | | | | | | |
| 프랑스 | 234.68 | 165 | 0 | 0 | 0 | 0 | 1 | 4 | 0 | 1 | 3 | 2 | 7 | 3 | 5 | 9 | | | 130 |
| 미국 | 55.20 | 214 | 0 | 0 | 0 | 0 | 0 | 22 | 2 | 12 | 3 | | 13 | 3 | 14 | 7 | | | 24 |
| 일본 | 29.82 | 187 | 4 | 12 | 1 | 3 | 0 | 0 | 4 | 0 | 3 | 0 | 0 | 0 | 5 | 0 | 0 | | 155 |
| 08 | | | | | | | | | | | | | | | | | | | |
| 프랑스 | 204.88 | 164 | 0 | 0 | 0 | 0 | 0 | 3 | 1 | 1 | 3 | 4 | 9 | 2 | 9 | 8 | | | 124 |
| 미국 | 42.60 | 44 | 0 | 0 | 0 | 0 | 0 | 2 | | | | | | | | | | | |
| 일본 | 28.09 | 200 | 2 | 9 | 1 | 5 | 0 | 0 | 1 | 0 | 3 | 0 | 0 | 0 | 9 | 0 | 2 | | 168 |
| 대한민국 | 3.77 | 179 | | | | | | | | | | | | | | | | | |

연구과정에서 드러난 첫 번째 문제점은 한국의 총예산과 총건수는 OECD 통계 사이트를 통해 파악할 수 있었다. 그러나 프랑스, 미국, 일본의 경우 구체적인 지원내용을 알 수 있었으나 한국의 경우 OECD에 통계만 보고되었을 뿐 구체적인 내용은 파악하기가 어려웠다. 그 이유는 한국의 ODA 지원체계의 분립으로 전체적인 지원현황이 파악되지 않는 것으로 보여졌다.

2007년 한국의 문화사업 지원액은 1.76으로 234.68로 1위인 프랑스에 비해 월등히 낮으며 일본의 29.82에 비해서도 많이 낮다. 2008년의 경우, 지원액은 1.76에서 3.77로 상향되었으나 여전히 낮은 지원액에 머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이한 점은 세 나라의 자료와 비교해서도 문화사업 건수 현황이 전체 공여국 가운데 일본의 200건 다음으로 179건의 높은 건수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2007년의 30건에 비해 1년 사이에 179건으로 상향된 것은 의미하는 바가 있다. 비록 프랑스, 미국, 일본에 비해 지원액은 낮지만 앞으로 문화예술사업에 있어 한국이 비교우위 가능성이 높은 전망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2007년 1순위인 프랑스의 경우, 총예산이 234이고 총건수는 165건이다. 반면, 한국은 1.76에 총건수는 30건이다. 한국의 총예산은 프랑스 대비 0.75%이며, 총건수는 18.18%이다. 2008년 1순위인 프랑스의 경우, 총예산이 204.8이고 총건수는 164건이다. 반면, 한국은 총예산이 3.77이고 총건수는 179건이다. 즉 프랑스 대비 1.84%이며 총건수는 109.14%이다. 즉, 한국은 1년 사이에 총예산이 244.68% 증액되었으며 총건수는 600.33% 증액된 셈이다.

[표 6]은 OECD 국가의 2011년 ODA 총액과 문화분야 사업의 비율이다.

표 6. OECD 국가의 2011년 ODA 총액과 문화분야 사업의 비율[11]

| 원조금액 해당년도 | 구분: 총 지출(Gross Disbursements), 단위: 백만 달러 | | | 비중 순위 | |
|--------------|--|------------|--------------------|----------|----|
| | 2011 ODA 총액 | 2011 순위 | 2011 문화분야 비중(%) | | |
| 한국 | 1034.26 | 16 | 5.64 | 0.55 | 6 |
| 호주 | 4153.66 | 8 | 3.52 | 0.08 | 16 |
| 오스트리아 | 494.44 | 20 | 0.29 | 0.06 | 17 |
| 벨기에 | 1980.65 | 15 | 2.98 | 0.15 | 13 |
| 캐나다 | 4150.02 | 7 | 0.7 | 0.02 | 22 |
| 체코 | 76.96 | 24 | 0.02 | 0.02 | 20 |
| 덴마크 | 2213.75 | 13 | 4.25 | 0.19 | 11 |
| 프랑스 | 859.34 | 17 | 1.51 | 0.18 | 12 |
| 독일 | 9398.0 | 4 | 170.25 | 1.81 | 2 |
| 그리스 | 153.9 | 23 | 47.39 | 0.46 | 8 |
| 아시아권 | 2005 | 25 | | | |
| 아일랜드 | 606.99 | 18 | | | |
| 이탈리아 | 2097.54 | 14 | 2.81 | 0.13 | 14 |
| 일본 | 15638.74 | 2 | 33.61 | 0.21 | 10 |
| 북령부르크 | 280.98 | 22 | 0.05 | 0.02 | 21 |
| 네덜란드 | 450.0 | 6 | 15.54 | 0.34 | 9 |
| 뉴질랜드 | 333.26 | 21 | 0.12 | 0.04 | 19 |
| 노르웨이 | 3561.59 | 10 | 26.97 | 0.76 | 4 |
| 포르투갈 | 515.17 | 19 | 4.16 | 0.81 | 3 |
| 스페인 | 2578.61 | 11 | 67.13 | 2.6 | 1 |
| 스웨덴 | 3694.18 | 9 | 18.1 | 0.49 | 7 |
| 스위스 | 2401.3 | 12 | 3.21 | 0.13 | 15 |
| 영국 | 8773.06 | 5 | 59.63 | 0.66 | 5 |
| 미국 | 28278.1 | 1 | 11.43 | 0.04 | 18 |

한국은 ODA 총액이 1034.26이며 순위는 16위이다. ODA 총액에 비해 문화분야의 비율은 0.55로 낮지만 순위는 6위로 높은 편이다. 이는 한국의 공여국으로서의 수원국에 대한 지원이 문화분야에 맞춰져 있음을 의미한다.

연구과정에서 드러난 두 번째 문제점은 2009년과 2010년 현황 자료를 찾을 수 없었다는 것이다. [표 4]와 [표 5]를 통해 한국의 총예산과 총건수는 조사가 가능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정확한 자료가 없었기에 세부적인 조사의 어려움이 있었다. 이것은 한국의 지원현황에 대한 체계적인 정리가 부족하며 아직 이 분야에서는 시작단계라는 점을 시사한다.

한국은 ODA를 담당하는 기관이 분립되어 있는 형태이다. 그 가운데에서도 ODA 지원 비중이 높은 기관이 문화체육관광부와 KOICA이다.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분야 ODA 추진계획은 문화예술을 통한 수원국의 발전과 ODA의 보다 전문적인 발전을 목표로 한다. 따라서 타 문화권과의 지속 가능한 교류협력을 강화하고 문화 ODA를 통한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를 확대하며 문화 다양성을 증진하고자 하는 정책을 실행하고 있다.

표 7. 문화분야 ODA 프로그램[12]

| 사업명 | 05 | 06 | 07 | 08 | 09 | 10 | 11 | 12 | 13 | 계 |
|---------------|------|------|------|------|------|------|------|------|-----------|-------|
| 1.문화동반자사업(부처) | 1200 | 3100 | 2600 | 15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3400 |
| (소속기관) | | | | | | | 450 | 355 | 355 | 1160 |
| 2.유네스코신탁기금사업 | | | 300 | | 300 | | 500 | | 498 | 1598 |
| 3.해외문화예술봉사단 | 100 | 120 | 120 | 120 | 102 | | 120 | 120 | 120 | 940 |
| 4.유네스코세종문해상 | | | | 46 | 107 | 150 | 123 | 126 | 121 | 673 |
| 5.WIPO신탁기금지원 | | 200 | 240 | 240 | 240 | 240 | 400 | 400 | 400 | 2360 |
| 6.개도국관광발전지원 | | | | 800 | 780 | 702 | 702 | 702 | 667 | 4353 |
| 7.해외작은도서관조성 | | | 30 | 150 | 300 | 70 | 500 | 861 | 860 | 2771 |
| 8.개도국스포츠포발전지원 | | | | | | | | | 2636 | 2636 |
| 9.문화예술교육지원 | | | | | | | | | 200 | 200 |
| 합계 | 1300 | 3420 | 3290 | 2856 | 2727 | 2282 | 3795 | 3564 | 6857(87%) | 30091 |

표 8. KOICA 문화분야 ODA 사업내용

| 주관 기관 | 사업내용 | 연도 |
|---------------------------|-------------------------------------|-------------------|
| KOICA (22개사업 총667건) | 교사,학생 교육 및 한국어 홍보,보급 | 2006 |
| | 농경제 교육 및 기술지도 | 2006 |
| | 도서관운영 기술 전수 | 2006 2011-2012 |
| | 태권도 교육 | 2006,2012 |
| | 미술 교육 지원 | 2008 |
| | 박물관 운영 기술 전수 | 2008-2012 |
| | 기록정보 관리 기술 전수 | 2009 |
| | 도서관 사서 교육 지원 | 2009 |
| | 영상, 미디어 증진 지원 | 2011 |
| | 한국 전통무용 전수 | 2011 |
| | 체육 교육 | 2012 |
| | 공공 국립 박물관 건설 지원 | 2012 |
| | 키르기스스탄 문화예술 축진을 위한 키르기스스탄 국립극장 개선지원 | 2012 |
| 도서관 사서 지원 | 2012 | |

[표 7]은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분야 ODA 프로그램 현황표이며 [표 8]은 KOICA의 문화분야 ODA 프로그램 현황 표이다. 두 표는 각각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지원현황을 분석한 것이다. 2005년부터 2013년까지 여러 부문에서 문화분야 ODA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각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1. 문화동반자사업' 프로그램은 2005년부터 2012년까지 진행되었다. 수원국의 관광·문화예술·체육 분야의 전문 인사들을 초청하여 그들에게 한국의 전문기술을 이전시키고 워크샵을 진행하였으며, 75개국에서 704명이 참가하였다. 또한, 해당 영역의 전문적인 연수와 함께 공동창작을 이루었고 한국어 학습과 문화 탐방 등의 현장 탐구도 실시했다. 이를 통해 한국의 문화정책 및 문화산업 발전의 방법론을 배우게 하고, 현장을 체험케 하며, 전문연수와 공동창작을 통한 발전의지를 제고하고, 각 수원국의 고유 방법론을 모색하게 했다. 따라서 사업 참가자와 우리나라간의 상호 호혜적 협력을 통한 관계 확립과 동반자간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정기적 차원의 국가 간의 문화교류를 확대하고자 했다. '2. 유네스코 신탁기금사업' 프로그램은 2007년부터 격년제로 2013년까지 진행되었다. 1차 사업은 몽골과 베트남의 전통 수공예와 문화원형 디지털 사업을 발전시켰으며, 2차 사업은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의 전통 수공예를 보존 및 발전시켰다. 또한 3차 사업은 몽골, 베트남,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라오스 등 창조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강화시킨 사업이다. 이로써 수원국의 문화산업 진흥을 지원하고 한국 문화산업의 위상을 제고했으며 문화산업의 국제연대를 도모하였다. '3. 해외문화예술봉사단' 프로그램은 해외 현지의 청장년층을 대상으로 만들었으며 판소리, 사물놀이, 장구, 민요 등의 전통문화 예술 강연과 공연 등의 봉사활동이 주를 이루었다. 해외에 한국의 전통예술분야의 한국문화를 소개하고 확산시키는데 공헌하였고 청년 예술인들의 글로벌 리더쉽 역량 강화가 목적이었다. '4. 유네스코세종문화해상' 프로그램은 지금까지도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다.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정신을 세계에 알리고 지구상의 문명퇴치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 장려가 목적이다. '5. WIPO신탁기금 지원 사업' 프로그램은 WIPO와 공동으로 개도국의 저작권을 보호하고 인식향상을 도모하고 저작권정책의 선진화를 지원하는 것이다. 개도국의 문화 콘텐츠 산업발전 및 경제성장을 도모하고 개도국 내 저작권 보호환경 개선과 현지의 우리 문화콘텐츠 저작권 보호 강화가 목적이다. '6. 개도국관광발전 지원프로그램은 2015년까지 총 2단계로 진행되는 사업이다. 개도국의 관광자원 개발을 통한 지속가능한 관광 발전을 지원하고 관광개발을 통한 개도국의 빈곤퇴치에 기여하며 개도국의 관광자원을 밑바탕으로 한 자립발전의 모델을 제시하고 협력하는 것이 목표이다.

KOICA의 문화분야 ODA 프로그램의 지원목적을 살펴보면 개도국과의 우호적인 협력관계 및 상호교류를 증진하는 국가들의 사회적 경제적 발전을 지원하고 국제개발협력을 증진하는 것이다. [표 8]은 KOICA 문화분야 ODA 사업내용이다. 2006년부터 2012년까지 각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2006년에 '교사, 학생 교육 및 한국어 홍보 보급', '농경제 교육 및 기술 지도', '도서관 운영 기술 전수', '태권도 교육'이 진행되었다. 2008년에 '미술 교육 지원', '박물관 운영 기술 전수'가 진행되었는데 '박물관 운영 전수'는 2012년까지 진행되었다. 2009년에 '기록 정보 관리 기술 전수', '도서관 사서 교육 지원'이 진행되었다. 2011년에 '영상, 미디어 증진 지원', '한국 전통무용 전수'가 진행되었다. 2012년에 '체육 교육', '콩고 국립 박물관 건설 지원', '키

르키즈스탄 문화예술 촉진을 위한 키르키즈스탄 국립극장 개선지원', '도서관 사서 지원'이 진행되었다. '도서관 운영 기술 전수'와 '박물관 운영 기술 전수'만이 여러 해에 걸쳐 연속적으로 진행된 반면, 나머지 프로그램은 1회성에 그치고 말았다. 예외로 '태권도 교육'은 2006년과 2012년에 진행되었다.

2. ODA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현황

2.1 문화체육관광부의 ODA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현황

앞에서 문화체육관광부는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문화분야 ODA의 지원 방식이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렇다면 수원국에 대한 문화예술교육 지원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뤄졌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향후 수원국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앞의 [표 7]에서 '9. 문화예술교육지원' 프로그램이 다른 프로그램에 비해 늦은 2013년에 시작하고 있다. [표 9]는 문화체육관광부의 2013년도 '문화예술교육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이다. 세부적으로 여섯 개의 프로그램이 있다.

'글로벌 문화교류 협력포럼 개최' 프로그램은 현재까지 매년 1회씩 진행되고 있다. 카리브 국가들과 다양한 문화교류 분야에서 실질협력을 증진하고 방안을 모색하며, 한국의 국제관광 협력 역량 강화와 함께 관광분야에서 관광 ODA로 확대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해외 문화원 확대' 프로그램은 2017년까지 지원될 예정이며, 개도국에 대한 문화 분야 공적개발원조를 확대하고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제공하고자 했다.

'아시아문화전당을 아시아문화교류의 중심축으로 활용' 프로그램은 아시아 문화의 다양성 증진과 문화 자원을 활용한 동반자적 발전, 아시아의 공통 테마의 콘텐츠화로써 개도국에 대한 공적개발원조 확대로 함께 성장하는 문화동반자로서의 이미지 구축과 호혜적 문화예술 교류 네트워크 형성이 목적이었다.

'베트남 라오까이성 사과 초등학교, 김동 중학교 사진 교육' 프로그램은 2017년까지 시행될 사업이다. 지속가능한 발전 교육으로서의 문화예술교육 가치 확산에 기여

하고 학생들의 창의성과 자존감,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현지 교사들의 사진을 통한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이해와 사례분석, 표현과 실습을 통한 자생적 교육 방식을 습득하는 것이었다.

‘해외 작은 도서관내 도서, 영상물, 한국문화콘텐츠 지원’ 프로그램은 에티오피아 10곳의 작은 도서관에 도서관 자료와 운영자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최빈국 어린이와 청소년의 문화정보격차를 해소하고 학습능력향상으로 교육을 통한 빈곤퇴치가 목적이었다.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신탁기금신설’ 프로그램은 현재까지 진행되는 사업으로 문화 공적개발원조 확대를 통한 개발도상국의 저작권 보호집행 환경을 개선하고자 한다.

표 9. 문화체육관광부 2013년도 문화예술교육 현황

| 년도 | 분류 | 세부내용 | 지원액 |
|------|-----------|---------------------------------|-----|
| 2013 | 문화예술 교육지원 | 글로벌 문화교류 협력 포럼 개최 | 200 |
| | | 재외 문화원 확대 | |
| | | 아시아문화전당을 아시아문화교류의 중심축으로 활용 | |
| | | 베트남 라오까이성 사파 초등학교, 김동중 학교 사진교육 | |
| | | 해외 작은 도서관내 도서, 영상물, 한국문화 콘텐츠 지원 | |
| | |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신탁기금 신설 | |

2.2 KOICA의 ODA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현황

[표 10]은 KOICA의 2013년도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세부 내용이다.

‘방글라데시 다카 밀물 슬럼지역 어린이 센터’ 프로그램은 슬럼지역 교육환경개선, 보편적 초등교육 달성, 지속가능한 환경확보의 목적으로 시행되어졌다. ‘방글라데시 과학교육 역량 강화 사업’ 프로그램은 과학교육을 통한 빈곤감소, 300명의 과학교사 양성을 통한 중등 과학교육의 질을 개선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다. ‘캄보디아 극빈층 아동들 양육 및 교육’ 프로그램은 빈민층 지역의 극빈층 아동교육을 통한 삶의 질을 개선하고 양육 고아들이 미래 캄보디아 지도자로 성장함으로써 캄보디아 발전에 기여하게 하는 것이었다.

‘프놈 끄라움 마을 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와 역량 강화를 위한 캄보디아 전통 공예 지원 사업’ 프로그램은 캄보디아 전통 공예기술 보급을 통한 지역주민 역량 강화, 프놈 끄라움 전통 공예의 사회적 협동조합을 결성해서 마을 내 공예 제작장과 전시장을 건설하여 공예촌을 형성하였다. 그리하여 그 지역의 관광성을 높이고 경제적 발전 또한 가능하게 한 내용이다. ‘캄보디아 열후지역 아동들의 독서능력 향상을 위한 전래동화 보급사업’ 프로그램은 빈민층 지역의 극빈층 아동교육을 통한 삶의 질을 개선하고 양육고아들이 미래 캄보디아 지도자로 성장하도록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다. ‘몽골국 바양조르그구 취학 전 어린이와 초등학생 방과 후 학습지도 및 적성개발 증진’ 프로그램은 빈민지역 취학 전 아동과 초등학생의 기초 학습을 돕고 그들에 대한 신변보호와 함께 그 부모들의 사회 경제 생활 참여를 유도하여 각 빈민 가정의 경제적 자립을 도와주었다.

표 10. KOICA 2013년도 문화예술교육 현황

| 년도 | 분류 | 세부내용 | 지원액 |
|------|-------------|--|---------|
| 2013 | 문화 예술 교육 지원 | 방글라데시 다카 밀물 슬럼지역 어린이 센터 | 133,317 |
| | | 방글라데시 과학교육 역량 강화 사업 | |
| | | 캄보디아 극빈층 아동들 양육 및 교육 | |
| | | 프놈 끄라움 마을 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와 역량 강화를 위한 캄보디아 전통 공예 지원 사업 | |
| | | 캄보디아 열후지역 아동들의 독서능력 향상을 위한 전래동화 보급사업 | |
| | | 몽골국 바양조르그구 취학전 어린이와 초등학생 방과후 학습지도 및 적성개발 증진 | |

2.3 정책적 제언

그동안 경제적인 발전과 인프라 마련에 치중되었던 공여국의 수원국에 대한 ODA는 이제 그 가치를 한 단계 높여 원조를 받는 나라들의 문화와 정서에 대한 존중을 기본으로 하여 각 나라가 갖고 있는 문화적인 특징들 안에서 수원국 주민들이 문화권을 향유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그들의 전통을 보전할 수 있도록 개발을 추진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 번째,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전문화이다. 즉 전문적인 연구와 그 연구에 대한 집중투자가 요구된다. 전문 인력에 대한 정책 입안자와 활동자의 지

속적인 관심과 참여로 수원국의 빈곤을 감소시키고 복지를 향상시켜야 한다는 뚜렷한 자세가 필요하다. 이와 함께 수원국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와 그 연구에 대한 투자가 중요함을 인식해야 한다. 또한 국내 문화예술계의 전문 인력에 대한 개발협력의 인식, 즉 수원국의 문화예술교육을 위해 어떤 식의 접근 방식을 지녀야 할 것인지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켜야 한다. 두 번째, 지속 가능한 프로그램의 개발이다. 한국의 교육열은 세계에서 손꼽힐 정도로 강하다. 따라서 다양한 교육 관련 프로그램들이 개발, 실행되고 있다. 수원국의 교육 관련 프로그램의 틀이 마련되어질 수 있도록 전문가들과의 협의를 통해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 세 번째, 지원기관의 통합이다. 수원국에 대한 지원활동과 체계적인 제도 확립을 위해서 분립된 지원기관의 통합은 중요한 사항이다. 아울러 공여국 정부는 수원국 주민들의 빈곤을 경감하고, 최소한의 복지를 누리게 하며[13], ODA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방법으로 수원국의 문화자원 활용과 사회와 경제적 발전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공식적인 지원 협력으로 ODA사업에 접근해야 한다.

한국의 문화분야 ODA 문화예술교육의 방향에 대한 현재의 답변은 문화협력정책에 대한 제고의 필요성이다. 즉 지금까지와는 다른 정책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는 인적·물질 교류의 단순교류뿐만 아니라 협력의 성숙한 단계라는 틀 안에서 정책이 짜여야 함을 의미한다.

표 11. 문제점과 대안

| | | |
|---|-----|------------------------|
| 1 | 문제점 | ODA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의 전문성 결여 |
| | 대안 | ODA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의 전문화 |
| 2 | 문제점 | 산발적인 ODA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
| | 대안 | 지속가능한 프로그램개발 |
| 3 | 문제점 | 지원기관의 분립 |
| | 대안 | 지원기관의 통합 |

III. 결론

본 논문에서는 문화분야 ODA 개념과 문화분야

ODA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현황을 살펴보았는데, 흩어져 있는 단발적 자료를 찾는데 집중했었다. 각 ODA 지원 기관들의 홈페이지에 자료가 올라와 있음에도 여전히 구체적이고 전체적인 현황 파악은 힘들었다. 이는 그동안 ODA를 지원했던 기관들이 현황에 대한 중요성 인식이 없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ODA 지원 현황이 전체적으로 공표되면 이를 통해 지원되는 프로그램들의 장단점을 찾아 미래지향적이고 발전적인 지원을 계획할 수 있으며 이것은 수원국에 대한 성공적 공적개발원조로 자리 잡을 수 있다. 비록 본 연구에서는 구체적인 현황을 모으고자 하였으나 단편적인 현황들로 인해 체계적인 현황을 제시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본 연구자는 일원화된 기관이 아닌 여러 기관의 독립적인 지원으로 인해 ODA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형태를 알기가 힘들었으며, 연구를 진행할수록 문제를 인식하게 되었다. 이를 위해 ODA 지원 현황을 한 눈에 알 수 있는 홈페이지나 체계적인 보고서가 필요하다. 문화체육관광부의 43개 부서와 17개의 소속기관의 크고 작은 지원내용과 아울러 KOICA의 지원의 개별적 현황에서 하나의 통합된 체계구축이 필요해 보인다. 연구를 끝내는 이 시점(2015년 6월 현재)에서 다행히 ODA종합정보시스템이 구축되어 개별적 현황들이 하나로 통합되어지고 있는 점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또한 현황 연구를 통한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도출되었다. 첫 번째,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전문성 결여이다. 앞에서 설명한바와 같이 한국은 2010년대에 들어와서야 문화분야 ODA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연구가 미비하게나마 시작되었다. 또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정의도 뒤늦게 정립되기 시작했다. 이처럼 한국의 문화분야 ODA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은 전문성이 결여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두 번째, 지속 가능한 프로그램의 부재이다. 즉 수원국에 대한 집중과 관리 보다는 단발성 프로그램 진행에 머물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본문에서 밝혔듯이 ODA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와 그 연구에 대한 집중 투자와 책임감 있는 진행이 필요하다. 세 번째, 지원기관의 분립이다. 한국의 분립된 ODA 지원기관은 수원국에 대한 지원활동에 여러 가지 제약을 갖고 있다. 수원국에

대한 지원이 중복이 되거나 또는 편중되는 문제점들을 야기한다. DAC(개발원조위원회)는 각 나라들의 분립된 ODA기관들이 하나로 통합하기를 유도하고 있다. 그 이유는 수원국에 대한 지원 활동에 보다 더 집중하기 위해서이다. 이와 같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ODA 문화예술교육 분야에 대한 지원과 관심은 짧은 기간임에도 다른 공여국들보다 높다 라는 것은 앞의 표로서 알 수 있다.

우리 사회에서 ODA라는 용어는 아직 낯설다. 하지만 이미 공여국으로서의 위상이 정립되기 시작했고, 특히 2013년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한류발전 전략 핵심 추진과제에 문화 영역 ODA 사업이 포함되어 예산이 책정되었다. 아울러 꾸준한 예산 증액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볼 때, 문화예술 ODA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관심은 한층 고조될 것이다. 또한 한국은 수원국에 대한 문화적 지원에 있어 다른 공여국과 다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수원국 시절 한국은 경제개발에만 매진한 결과 전통문화의 가치가 많이 훼손되고 소실되었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높다. 따라서 공여국으로서의 한국은 스스로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수원국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접근 방식을 택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ODA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들은 다양하지만 산발적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한국문화의 우수성을 홍보하고자 하는 전략으로 수원국에 접근함으로써 인류애에 대한 보편적 가치성 보다는 한류에 대한 관심을 강조했다. 또한 인프라 지원에 집중했다. 이는 성과가 중요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 한국은 지속가능한 프로그램을 개발함으로써 가시적이 아닌 장기적인 안목에서 수원국의 문화 분야 ODA에 대해 접근이 필요하다.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의 전환된 한국만의 특수성은 이미 다른 수원국들에게 모범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한국만의 수원국에 대한 특수한 문화적 접근 방식 또한 중요할 수밖에 없다. 수원국의 전통문화를 보존하고 문화유산을 지키며 개발을 통해 경제적 빈곤을 감소시키고 문화발전이 수원국 발전의 토대가 될 수 있도록 이끄는 것이 세계 인류애와 보편적 가치실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수원국과의 동반자적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참고 문헌

- [1] <http://www.koica.go.kr/>.2015.06.30
- [2] <http://www.epeople.go.kr/jsp/user/UserMain.jsp>
- [3] 정정숙, *지속가능한 국제개발협력의 열쇠, 문화영역 공적개발원조(ODA)*,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3.
- [4] 정환문, “한국 문화분야 ODA문제와 나아가야 할 방향,” *문화산업연구*, Vol.14, No.1, 2014.
- [5] 정정숙, *문화영역 공적개발원조(ODA)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3.
- [6] 정정숙, *문화영역 공적개발원조(ODA)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p.16, 2013.
- [7] 정정숙, *문화분야 공적개발원조(ODA) 사업개발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p.37, 2010.
- [8] 한국국제협력단, <http://www.koica.go.kr/>
- [9] 정정숙, *문화분야 공적개발원조(ODA) 사업개발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0.
- [10] OECD, <http://www.oecd.org/>
- [11] OECD, <http://www.oecd.org/>
- [12] 김향림, *문화영역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공적개발원조)를 통한 문화교류 활성화 방안 : 한-아랍소사이어티 및 아랍연맹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4.
- [13] 정정숙, *문화분야 공적개발원조(ODA) 사업개발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p.125, 2010.

저자 소개

백 소 연(So-Yeon Paek)

중신회원



▪ 2014년 9월 ~ 현재 : 조선대학교
문화학과(석사)

<관심분야> : ODA, 문화ODA, 문화예술교육

박 경 철(Keong-Cheol Park)

중심회원



▪ 2006년 9월 ~ 현재 : 조선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과·문화학과
부교수

<관심분야> : 디자인, 만화, 영상, 콘텐츠, 캐릭터